

소련의 석유수출동향과 전망

1988년 소련의 石油생산은 6억2천4백만톤(12.6백만b/d)으로 '87년도 수준에 머물렀으나, 石油수출, 특히 對西方 수출은 대폭 증가하였다. OECD지역에 대한 石油수출은 '87년에 82.6백만톤으로부터 84백만톤으로 증가하였다. 국내 에너지시장의 수급꺾박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石油수출이 증가한 것은 경제개발을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외화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IEA(국제에너지기구)의 자료에 의하면, OECD의 소련 原油 및 석유제품 수입은 '88년 상반기 동안 36.7백만톤(1.5백만b/d)으로 '87년 동기의 36.5백만톤에 비해 1%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 자료에는 소련 石油의 전통적 시장인 西獨의 수출입 물량이 <표-1>에서 보듯이, 누락되어 있어 실제 소련의 OECD 지역 石油수출은 5백만톤 추가가 예상된다.

주요 수입국인 이탈리아는 총 석유수입 중 약 15%인 6.6백만톤을 소련으로부터 수입하여 서방 선진국 중 소련 石油의 최대 수입국으로 기록되었다. 프랑스는 '87년 동기보다 60% 증가한 5.8백만톤의 石油를 소련으로부터 구매하였으며, 네델란드와 핀란드는 4.1백만톤과 5.2백만톤을 각각 소련으로부터 구매하였다.

소련의 총 石油수출은 '87년 동기에 비해 1% 증가에 그치고 있으나, 내용에 있어서 제품수출로부터 원유수출로 수출패턴이 뚜렷이 변화하였다. '88년 상반기 對西方 제품수출은 39% 감소하여 소련의 총 석유수출의 1/4 이하로 축소되었다. 제품 중에서 燃料유 수출이 '87년 상반기의 2.8백만톤에서 1.3백만톤으로 가장 뚜렷한

감소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燃料유 수출의 급격한 감소는 원자력 발전의 차질에 따라 국내의 화력발전용 燃料유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소련은 석유제품 시장에서 세어확대를 위한 장기계획에 의하여 국내 정유시설의 고도화와 확장에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

油價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石油수출은 소련의 무역수지에 사활적인 요소이다. 소련은 외화수입의 60% 이상을 對西方 원유 및 제품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동구 및 개도국에게도 원유 및 석유제품을 연간 1억톤 가까이 수출하고 있으나, 대부분 軟貨 또는 바터로 이루어지고 있어 소련의 西方제품 구매력 증대에는 별로 도움이 안되고 있다.

소련은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공업 및 농업의 현대화 계획추진에 따라 외국자본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더욱이 금년에는 지난해의 흉작에 따라 美國으로부터 대량의 곡물수입이 요구되어 외화의 추가지출이 예상된다.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련 국민의 생활수준은 별로 더 나아진 것이 없으나, 경제개혁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정부는 西方제품 수입을 확대하지 않으면 안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그러나 외화 수입증대를 위해 石油수출을 증대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89년도 생산목표인 631.6백만톤(12.7백만b/d)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기대인 듯 하다. 지난 '87년 1~8월 소련의 평균 산유량은 12.6백만b/d였다. 그러나 연말에 집계된 '88년 전체 산유

〈표-1〉 소련의 對西方 석유수출

(단위: 천톤)

	원 유		석유제품		計		증 감 륜	
	'87상반기	'88상반기	'87상반기	'88상반기	'87상반기	'88상반기	(88상반기/ 87상반기)	'88상반기 증수소련 증량비
오스트리아	157	613	19	13	176	626	356	14.1
벨기에	2,395	2,682	403	365	2,798	3,047	109	16.0
캐나다	-	-	6	13	6	13	217	0.1
덴마크	345	186	44	31	389	217	56	4.9
핀란드	4,008	3,921	1,689	1,266	5,697	5,187	91	96.0
프랑스	2,341	5,274	1,269	537	3,610	5,811	161	13.0
西獨	1,961	-	2,846	-	4,807	-	-	-
그리스	987	1,530	72	131	1,059	1,661	157	21.0
아이슬랜드	-	-	139	-	139	-	-	-
아일랜드	-	-	34	12	34	12	35	0.6
이탈리아	5,356	6,321	478	319	5,834	6,640	114	14.8
日本	20	5	442	396	462	401	87	0.3
네덜란드	350	991	4,569	3,096	4,919	4,087	83	10.4
노르웨이	87	156	71	34	158	190	120	11.0
포르투갈	-	39	-	-	-	39	-	0.8
스페인	1,303	2,938	208	642	1,511	3,580	237	13.1
스웨덴	891	816	484	476	1,375	1,292	94	12.3
스위스	70	-	417	330	487	330	68	5.5
터키	130	291	108	86	238	377	158	3.4
英國	1,845	2,113	627	425	2,472	2,538	103	10.2
美國	80	173	205	442	285	615	216	0.4
計	22,326	28,049	14,130	3,614	36,456	36,663	101	5.9
총수출량중								
나프타	-		2,595	1,496			58	6.9 e)
휘발유	-		386	484			125	1.9 e)
경유	-		7,704	4,903			64	11.8 e)
연료유	-		2,792	1,267			45	3.2 e)
기타	-		653	464			71	-

〈표-2〉 소련의 石油생산 및 對 OECD 수출

(단위: 백만톤)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생 산	612.0	616.0	612.0	595.0	615.0	624.0	624.0
수 출	70.0	78.0	81.4	67.4	77.8	82.6	84.0(잠정)

량은 624백만톤(12.56백만b/d)로서 후반 4개월 동안 생산감소가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감소 추세가

극적으로 역전된다면 '89년의 생산목표가 달성 가능할 것이다.

석유산업은 예측불허이며 향후 생산목표에 대하여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 일부 소련 전문가들은 '90년대에 연간 약 635백만톤의 생산을 확신하며, 다른 여건만 순조롭다면 '90년대 말 안에 650백만톤의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쨌든 소련이 성숙기가 지난 유전으로부터의 회수증대나 極地의 신규유전 개발을 위해서는 西方의 설비와 기술이 절실히 요구된다.

소련 석유산업에 대한 외국의 투자는 미미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향후 수년 안에 투자지역의 확대가 예상된다. 소련의 석유산업성은 이번 여름에 소련을 방문하는 기업인단을 구성중인 콜로라도 소재 Gustavson Associates Inc.의 Gustavson氏를 초청하였다. 19일 동안의 방문기간 중 美國 및 英國의 전문가들은 西方의 기술, 자본, 경영을 소련에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 방문단은 특히 거대한 원유매장량이 발견된 北카스피해분지를 유망지역으로 꼽고 있는 듯 하다.

이 방문단은 불가, 우랄 지역의 石油매장량도 조사할 것이다. 이 지역은 西시베리아 다음으로 대규모 석유매장 지역이나 과도한 水功法的 사용이후 생산이 감소하고 있다.

Gustavson氏는 소련과 특히 극동의 베링해 및 사할린 지역에 대한 생산분배 협정에 낙관적 기대를 갖고 있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소련에 대한 투자가 시기상조라고 말하고 있으나 세브론과 옥시덴탈社는 이미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는 상태이다. 아모코社도 동지역에 관심을 보이고 '88년 하반기에 대표단이 두 차례 모스크바를 방문한 바 있다.

국내수요

수요측면에 있어서 소련은 연료낭비를 감소시키려는 취지 아래 산업용 유류가격을 인상시키려는 새로운 에너지 절약 대책을 실시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전력용 石油소비를 감소시키려는 계획은 체르노빌 원자

력 발전소의 사고에 의해 백지화된 상태이다.

이 사건에 의해 많은 원자력 발전소들이 보다 엄격해진 안전점검을 받기 위해 가동이 일시적으로 중지된 바 있다. 또한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계획과 기존 발전소의 확장계획도 취소 또는 연기되고 있다.

그러나 가스산업은 코스트 상승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가스생산은 '87년의 727십억 입방미터에서 '88년에 770십억 입방미터로 증가하였으며, '89년에는 820십억 입방미터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스 수출은 현재 피크수준인 연간 84십억 입방미터를 東歐 및 西歐에 거의 반반씩 수출하고 있다. 對東歐 가스수출은 西시베리아로부터의 主파이프라인이 새로 가동함에 따라 향후 수년 동안 증가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석유판매와 마찬가지로 동구에 대한 가스수출은 연화 또는 소련의 에너지 프로젝트의 참여형식의 바터 거래이기 때문에 소련의 외화 수입증대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 외화획득을 위한 가스 수출은 다른 지역과 경쟁을 해야 하므로 훨씬 어려움이 따른다. 차체에 소련은 90년대 후반에 주요 외화수입원으로 꼽고 있는 석유산업에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西시베리아에는 5개의 석유화학공장의 건설계획이 있으며, 이들 모두 서구기업과 합작 운영이 될 것이다. 각 프로젝트의 외국 참여회사는 다음과 같다.

- Nizhnevartovsk의 플라스틱 공장 - 미쓰비시, 미쓰이, 치요다
- Urengoi 유전 근처의 에틸렌, 에탄, 폴리프로필렌 공장 - Mc Dermott, 미쓰이, 토요엔지니어링, 미쓰이 엔지니어링 및 조선.
- Surgut 및 Tobolsk에 2개의 석유화학공장 및 고무 공장 - 컴버스켄 엔지니어링, Mc Dermott, 미쓰이, 미쓰비시.
- Uvat의 비료공장 : Salzgitter(西獨)

이들 플랜트들은 90년대 상반기에 모두 가동에 들어갈 것이며, 적어도 제품의 40%는 수출될 것이다. □

슬기모아 기술혁신 정성모아 품질향상